

공동체 소식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안내

-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며 교회력으로 나해(B)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 한해를 마감하며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나해(C)에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 교무금 완납해 주십시오.
- 대축일에는 공소에서든 본당 미사에 함께 참여 하십시오.

■ 신앙생활안내서/봉헌서 안내

- 신앙생활 봉헌서와 안내서를 받으시고 가족이 함께 상의하시어 대림 3주전까지 "성당봉헌용"을 봉헌해 주십시오.

■ 복사단 모임 안내

- 친교보림 : 25일(일) 미사와 식사 후
- 복사교육 : 대림 제1주일 미사와 식사 후 (12월 2일)

■ 성탄 합동 판공성사 및 미사 공동집전

- 판공성사 일시 : 12월 11일(화)
오후 7시 ~ 오후 7시 25분
미사 후 ~ 오후 8시 30분

- 미사 : 오후 7시 30분 ~ 오후 8시
- 세인트 루이스(Parish) 김상현 사도요한 신부님
- 판공성사 11일(화)에 못 보시는 분들은 매 미사 전 보시면 됩니다.

■ 평협회장 선거 안내

- 선거일 : 12월 16일(대림제3주일)
- 대상 : 성인남녀 가톨릭 신자
(선거에 관한 규정 교회법 제119조, 172조, 173조)
- 2019년 1월 평협회때 신규 평협이 함께 평협회를 하며 인수인계를 합니다. 새 평협은 대림 제3주일부터 시작됩니다.

■ 평협 임명 안내

- 평협회장 임명장 수여일 : 12월 23일(대림제4주일)
- 평협회원은 회장의 추천 후 임명합니다.

■ 전례 봉사자 모집 안내

- 모집 : 독서자, 해설자, 복사, 성가대원
-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 애찬 봉사자 모집

- 매 주일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형제,자매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총구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안내(수시)

- 신청은 전례부에 문의해 주십시오.(1년 \$60)
- 평일 미사 때 매일미사에 있는 영성체송을 합니다.
- 미사 참례전 가정에서 기도문과 독서/복음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78	221	179	73
차 주	90	211	171	4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문예나(요안나) 김정빈(바오로)
차 주	문호진(안토니오) 차민서(임마누엘)	문예나(요안나) 김지안(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차 주	김주연(세실리아)	김정원(베드로) 김말자(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 주	그리스도왕 대축일, 행사 1조
차 주	1조: 김시연,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이경남, 정연숙,조지연

■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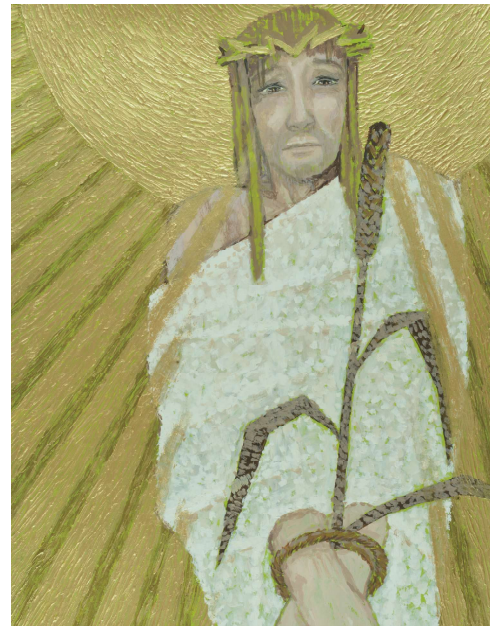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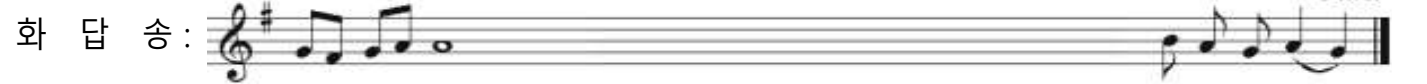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로,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임금님이신 그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하느님께서는 우리 정신을 밝게 비추시어,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군주의 임금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형제들에게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림 묵상

예수님께서는 비천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사랑과 연민의 왕이십니다. 황금빛 찬란한 슬픔의 빛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염려하시는 당신의 눈동자를 마주 뵙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들의 진정한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13-14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다.>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

제 2 독 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5ㄱ-8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께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33ㄴ-37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생명의 말씀 봉사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



사람은 죽어야 진정한 가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2014년 성인품에 오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는 가톨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교황이라는 찬사가 늘 따라붙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종한 후 불교와 이슬람 사원뿐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서도 그를 추도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구촌이 그분의 죽음을 아쉬워했던 이유는 항상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평화와 공존, 용서와 화해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중동 성지를 방문하셨는데, 구부정한 어깨에 보기도 안쓰러운 걸음으로 분쟁의 땅 곳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벳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교황님은 3개의 그릇에 담긴 흙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 그릇들은 각각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유대교 신자의 자녀 3명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3개의 종교가 화합하여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희망을 담아 각각의 흙에 입을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는 유대인 랍비가 하는 양식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삶은 항상 지도자가 어떤 자세와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는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권력으로 국민들을 통치하는 다른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보통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립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세상에 우뚝 서신 이유는 사랑의 완전한 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한마디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용서와 평화 그리고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왕직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의 모범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한마디로 봉사직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사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마침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는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어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했다.

어떤 왕은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떤 왕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하지만, 나의 왕은 나를 '친구'라고 불렀고 그렇게 사랑해 주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요한 18,36)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쉽', 주님의 뜻이자 선물

국가대표를 마무리하고 선수로서의 생활을 은퇴한 요즘, '어떻게 지내니?'라는 연락에 '참 행복하게 잘 지내요', '힘든 일이 좀 있어요'라는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아무래도 친하고 편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힘든 점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2월, 제 인생의 3번째 올림픽인 평창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저는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20대에 삶의 첫 번째 전성기를 지냈고, 삶의 첫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생소하고 어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운동과 함께 꿈꿔왔던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션 디자인입니다. 은퇴하는 순간, 아쉬움과 조금의 후회는 있었지만 이제부터 그 꿈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은퇴 후 긴 여행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꿈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소한 분야이긴 했지만, 운동을 하는 동안 틈틈이 관심을 갖고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운동을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할 때는 아프지 않던 몸이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또 디자인 작업을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이 분야에서 꼭 꿈을 키워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꿈을 빨리 접하고 싶고,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체가 설렜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 되돌아보니 저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휴식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스케이트를 신고 나서 은퇴하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고 그렇게 달려오는 것이 제게는 익숙해서인지, 무언가를 하지 않고 쉬는 제 모습을 상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 쉬어 볼까' 하는 생각은 바로 불안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몸을 챙기면서 휴식 시간을 가져보니 '쉽'이라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저 자신을 성장시켜야 하고, 매번 경쟁을 했기 때문에 '쉽다'는 것은 제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다. 은퇴 후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휴식'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했던 마음에서 벗어나 많은 것들이 편하게 느껴졌고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제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휴식도 주님의 뜻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조금 힘들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주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나 자신에게 마음의 휴식을 주는 건 어떨까요? 짧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또 휴식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하며 하느님과 시간을 많이 갖고, 하느님과 함께 맑고 빛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 리디아
前 쇼트트랙.스피스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교리상식



교리상식

천주교식 장례식을 치르고 싶을 때 누구와 의논하나요?

돌아가신 분이 가톨릭 신자라면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이나 그 가족이 속한 성당 사무실이나 연례회장에게 알립니다. 가족이나 돌아가신 분이 오랫동안 냉담 상태였거나 일정한 소속 분당 없이 신자 생활을 했을 경우에도 알리고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적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고인과 잘 아는 분 중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연락을 취하셔도 좋겠습니다. 만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운명한 경우라면, 그 병원 원목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톨릭계 상호회사와 계약을 맺어 장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